

대선바람 정략에 멍드는 불심

종단진흥회 조찬법회 파장과 향후전망

98년 대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불교표를 겨냥한 정치권의 여아공방이 뜨겁다. 종단진흥회(회장 일공)가 지난 18일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국가와 거리를 위한 기원대법회'를 전후하여 시작된 불교계 일련의 움직임은 교계 내부문제에서 신한국당과 국민회의의 '불교계 끌어내기' 싸움으로 번져 서로 불교분열을 책동하고 있다며 비방하고 있다. 더구나 이런 분위기는 교계내부의 분열모습으로 비쳐 지기까지하고 있다. 심지어 종단협과 진흥회, 또한 조계종 개역·수구 세력간의 갈등양상이라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15일 결의한 조계종 중앙총회의 성명서에서 공식적으로 표출됐다. 조계종 총회는 "최근 정부여당의 고위당직자가 추후로도 종단협 분열책동은 헌법의 정교분리정신에 어긋나는 국헌 문란행위"라며 "당사자는 불교도양에 사회하고 대통령은 당사자를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국민회의도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 "신한국당 강삼재 사무총장이 불교계 분열을 꾀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의 권위와 종교정책과 불교탄압으로 불심의 이중에 위기를 느끼 신도도 아닌 사람이 불교계에 개입하여 불순한 공작을 벌여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한국당은 이날 19일 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불교계내의 단체인 움직임을 놓고 우리당을 공격하는 것은 우리와 불교계를 이간시키려는 술수"라고 반박했다.

종단진흥회도 지난 20일 교계기자간담회를 갖고 "진흥회는 순수한 종교친목단체인 정칙회와는 관계가 없다"며 일부 언론의 신한국당 밀착설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는 등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종단진흥회는 앞으로도 종단협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진흥회도 순수 친목단체로 존립시키겠다고 국기와 거리를 위한 기원법회도 호국불교적인 차원에서 계속

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은 진흥회 출범이 94년 채택된 서의원 前총무원장의 불교계 복귀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는 판단아래 해종 행위자들이 주도하는 일련의 움직임으로 보고 경계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특

신한국·국민회의 "불교계 분열책동 말라" 상호비방 종단협-진흥회 갈등심화 우려...조계종 신구세력도 "정치시류 타지말고 화합해야" 자성 목소리

이런 기원법회를 앞두고 정치권에 직·간접적으로 행사불합 요청을 했다. 이와 함께 오는 27일 종단협 회장단회의를 개최하여 18일 진흥회 기원법회와관련 제재조치를 취하는 등 진흥회건을 일단락짓겠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정치권은 내년 대선체제로 돌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신한국당의 경우 이달말 대선준비작업의 일환으로 본격출범 예정인 '불교팀' 발족을 서두르고 있다는 것이다. 신한국당은 직능위원장 관리하에 불교팀을 두고 특별관리인을 비롯한 가장



△대한불교종단진흥회(회장 일공)는 지난 18일 오전8시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사부대중 1천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와 거리를 위한 기원대법회'를 개최했다.

많은 인원을 배정할 계획이다. 불교팀은 대불교계 접촉과 불교공약 개발등이 중점적인 사업이 될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기원법회 이후 교계 분위기가 일정정도 종단협 종단진흥회 반목과 맞물려 내년 대선까지 미묘하게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아무튼 불교계는 화합을 전제로한 자기 정화에 앞장서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정치권 일부에서 불교계를 '모래알 불심'이라 불릴만큼 비하하는 상황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해바라기성 불교지

도자 불교권인사들의 정치행태는 정치시류 존인된 머리 들어 대다수 불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특히 진흥회건으로 정치비판에 가속되어 무수한 추측을 낳아갈게 하는 불교분열 모습은 수행종교인 불교의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악재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종단협과 진흥회는 불교 지도자답게 내부문제를 스스로 풀어나가기를 기대하는 불자들의 소리에 귀기울여 할것으로 보인다.

김원우 기자

시론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지진은 없었지만 최근에는 무엇인가 불안한 예감을 들게 하는 소지진이 빈발하고 있다. 우리의 "관철이요"의 사고가 가뭄이나 태풍, 지진까지도 그때만을 넘기면 그러저러 살게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갖게 하였고 번덕스러운 일기에만 운명을 맡기는 마음과 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는다"는 식으로 웬만한 허물어면 그냥 보아 넘기는 무던 심경을 키워왔다.

나라말치는 공직자 비리

초가집이 대부분이었던 전통사회에서는 지진이 일어나도 재할의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부실한 수심 중의 대형건물이 즐비한 현대도시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면 무사할 건물이 얼마나 있을까? 요즘의 부패는 국운을 좌우하는 중대사이다. 제대로 사정조치를 한다면 남아 있을 수 있는 공무원이 몇이나 될까? 이승만의 망명, 박정희의 암살, 전두환 노태우의 형무소행, 역대 대통령은 모두가 불행한 결말을 맺었다. 또 전 국방장관 5명은 줄줄이 파면되거나 뇌물사건에 연루되어 좌초되고 말았다. 한때 양심적인 검사로 이름을 날렸던 사람도 선거에서 큰 돈을 쫓았

버릴 사람등이 것이 분명하다. 조선말기 국운이 기울었던 이유는 가문 중심의 세도 정치 때문이었다. 이역사적 교훈은 완전히 외면하고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중심의 가문정치, 남한은 한때는 대구 지금은 부산 중심의 세도 정치를 하고 있다. 이것은 권력자뿐만 아니라 일이 아니다. 국민 모두에게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가문, 지역주의가 광배해 있기 때문이다. 정치 수준은 국민의 윤리성을 어김없이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권력층은 "윗물이 맑아야 한다"는 논리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해방 이후 우리가 이성적으로 대통령 선거를 한번이라도 치러 보았는지 가 의심스럽다. 박정희 정권 이후 역대 정권은 지역차별을 권력창출의 수단으로 삼아 왔으며, 선거인의 원색적인 감정에 연합하는 정략만을 실시해왔다. 지역편중은 권력의 원초적인 부패의 온상이며 국민전체의 미래보다는 눈앞의 당근에 눈이 먼 선거만을 이용하는 것이다. 조선시대의 실학자 유흥원은 임진란 당시 함경도인이 조선의 왕자를 붙잡아 왜군에게 넘긴 사실을 두고 "함경도인이 조정으로부터 천사받았으며 국민으로서의 대접을



김용운 (한양대명예교수·본지는설위원)

받았으나 없었음이 그 원인이다"라고 간파했다.

예전의 가문중심 사회에서조차도 소외계층은 반항적 태도를 취했다. 하물며 요즘 같이 같은 의무와 균등한 권리를 갖는 국민국가 국민이 소외감을 갖는다면 반항적 태도는 더할 것이다. 권력층을 의심하는 공무원의 사명감을 상실하고 소외계층은 가문국가였으며 명예, 권력, 경제력을 함께 누리는 것을 이상으로 삼았다. 조선시대 권력자의 목적은 '종묘사직'이라 쟁쟁하게 자기 조상과 자신의 안락이었다. 그러나 국민국가는 국민모두에게 균등한 의무와 권리가 부여되어 지도자에게는 책무의식(noblesse oblige)이 강하게 요구한다. 따라서 '명예, 권력, 경제력'이 평등하게 균형을 이루어야하며 권력자는 솔선하여 자신의 책임을 다 해야 하는 것이다. 요즘 대통령 후보로 지목되어 '세도교체'를 가장 소리 높여 외쳤던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 대부분이 다. 이들은 전쟁이 나면 먼저 도망가

'잘살기' 보다 '보람' 찾아야

각 시대마다 사회에는 그 체제에 어울리는 이상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으며 지도계층의 태도는 그에 어울리는 것이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국민국가이며, 정보화의 물결속에 세계화를 이상으로 삼고있다. 우리의 이상은 국제사회에서 공지를 갖고 안으로 가는 길 높은 문화국민으로서의 인간다운 보람을 찾는 일이다. 이제는 물질 숭배의 '잘 살아보세'의 주권이 '보람 있게 살아보세'라는 것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사찰수행환경·문화재 보존 '청신호'

불교관계법 개정안 국회의원 발의 의미

지난 20일 불교관계법 개정안이 불자의 원 21명에 의해 발의된 것은 불교계의 숙원사업인 불교관련 약법이 비로소 입법기관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불교계가 개정을 요구하는 국가법령은 전통사찰보존법, 건축법, 자연공원법, 토지초과이득세법, 병역법, 농지법등 10여개 법령으로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전통사찰보존법과 자연공원법 건축법등 3개 법령이다. 이들 법령들은 입법당시부터 불교계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불권부당하다는 지적과 함께 꾸준히 개정을 요구해왔다.

이러한 불교계의 요구가 조직적이고 구체화된 것은 94년 조계종개원때부터로 총무원장은 시정되어야 할 국가법령집(96년 3월)을 발간하는 등 종단차원으로 적극성을 보여왔다.

이번에 의원발의된 것도 지난 10월 22일 국회정각회 회장단과 3당간사를 초청, 불교관계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마련되면서 가시화되었다. 국회 정각회(회장 서석재·신한국당)는

전사법·자연공원법·건축법 등 3개 법령 정각회·연등회원 주도...올 회기중 통과될 듯

총무원이 제안한 법개정안 검토에 들어갔고 이번에 국민회의 연등회소속 의원들이 의원 발의에 앞장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등회 간사 조성준의원은 20일 기자회견에서 "국회회기중에 법개정안을 통과 시키기 위해서는 20일을 넘길수 없어 연등회가 서둘렀다"며 "이번에 발의된 법개정안은 불교계뿐 아니라 공익성을 띠고 있어

여·야간의 이견은 없을것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의회에서의 불교관계법 개정의 의가 활발한 가운데 지난 21일 문체부 차관주관으로 내무부 문체부 건교부 농림수산부등 정부관계자들이 모여 불교계가 요구하는 법개정에 대한 행정부안을 만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외관련해 서석재 정각회장은 "행정부안과 불교계안을 검토, 최종안을 만들어 3당 공동발의로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불교관계법 개정은 의회뿐 아니라 정부도 적극 동참하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준엽 기자

개정법안 주요내용

△전통사찰보존법:사사지(死寺地)에 관한 규정을 신설(안 제2조 제8호)하고 지정된 사사지에 전통사찰을 복원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전통사찰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사찰전통환경과 문화유적공간을 보존하고 이를 해치는 행위를 금지토록함(안 제9조). 사사지복원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경비보조할 수 있도록함(안 제14조). △자연공원법:자연공원의 수입중에서 일정비율을 공익에 있는 문화재 소유자인 사찰 등에 지급할 수 있도록함(안 제33조 제2항).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에 편입된 사유지의 사용수익 제한등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함(안 제 43조 제1항). △건축법: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한 전통사찰을 건축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안 제3조).

생활속의 불교 99

끝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생주이멸(生住異滅)의 과정을 밟는다. 태어나서(生) 형체를 이루고(住) 변화의 과정을 거쳐(異) 사라진다(滅).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없다. 형체가 있는 것은 무엇이든 사라진다. 생주이멸 대신 성주괴공(成住壞空)이란 말도 쓴다. 형체가 드러났다가 무너져 공으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인간도 우주도 예외는 아니다. 사대가 문쳐 모습을 드러냈다가 다시 사대로 돌아간다. 근원으로 회귀한다.

우리가 즐겨 쓰는 세간(世間)이란 말의 '세(世)는 가해괴(可毀壞), 천류(遷流)라는 뜻이다. 닳아지고 무너지는 것, 바뀌고 흐르는 것이란 의미이다. 옛사람들이 세상모습이나 인생살이를 일컬어 부운(浮雲·뜨거운 구름)같다고 한 것은 허무의 울조림이 아니라 실상을 바로 본 나머지 내 발자국을 볼 수 없었던 말이다. 수증기가 모여 구름이 되었다가 다시 수증기로 흩어지듯 형상을 지닌 모든 것,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은 또 그렇게 사라질 운명을 지녔다는 사

실의 지적이다. 그렇다면 드러났다고 해서, 이루어졌다고 해서 좋아하고 사라졌다 해서, 무너졌다고 해서 슬퍼할 일은 아니지 않나. 더구나 거기에서 성공이니 실패니 하는 평가를 보태어 울고 웃고할 일은 아니지 않겠는가.

불법에서는 탄생과 죽음을 하나의 과정으로 파악한다. 태어남도 죽음도 다만 반복되는 과정의 모습일뿐 슬퍼하거나 축복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나아가서는 태어남이란 곧 사형선고를 받은 것과 같고 죽음이란 곧 헌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설명한다. 사실 어느 누구도 영생하는 이는 없다. 지금 이 순간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길어야 1백년 안쪽에 다 사라지고 말(근원으로 돌아갈) 존재이다.

그러므로 태어나(生) 자라고(住) 늙어서(異) 죽는(滅)과정을 놓고 보면 태어남은 죽음에 이르는 시작이고 늙음은 다시 태어나기 위한 준비인 것이다.



우리가 공력을 들여 성취하고자하는 일들도 예외없이 다 생주이멸의 과정을 밟는다. 길고 짧은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다 닳아지고 무너질것, 바뀌고 흐를 것에 불과하다. 고로 그 자연스런 흐름이 안타까워 어떻게든 붙잡아 보려고 애를 써도 결과는 자명하다. 시간속으로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거대한 제국도 그렇게 사라져 가는 데 한 인간의 작음이랴.

불법이 허무를 가르치고 있으나하면 그렇지는 않다. 오히려 더 역동적인 삶을 살라고 한다. 생주이멸의 흐름을 따라 사는 것, 흐름을 막으려 하지 않고 잡으려 하지 않고 흐름에 충실한 삶이 바람직한 삶이라고 가르친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삶을 말한다. 매 순간이 시작이요 오로지 영원하다는 삶, 시작은 좋고 끝은 나쁘다는 그런 관념을 내 던지고 오로지 지금의 행동으로 남는 삶을 살라고 가르친다. 모든 존재는 생주이멸의 과정을 밟으면서 결국은 근원으로 돌아가야 할 존

재들이기 때문이다. 고로 삶은 그대로 수행과정으로 파악된다. 우리가 삶의 과정에 마디를 지어가며 거기에 스스로 성공과 실패라는 이름을 붙여주고는 있지만 불법의 이치로 보면 그것은 성공·실패가 아니라 다만 수행인 것이다.

사람들은 오히려 과거와 미래에 묶여 살고 있다. 자신의 업적·공과, 자신의 미래에 현실보다 더 큰 비중을 둔다. 그 때문에 돌아보며 자만 또는 좌절·회한을 씌는가 하면 앞을 내다보며 희망 또는 불안을 갖는다. 그러나 과거는 오늘에 접목되어 있고 미래는 오늘에서 출발한다.

당연히 지금, 여기가 소중하고 지금 여기에 충실해야 하는데도 말이다. 삶의 과정은 매 순간이 시작이다. 삶은 항상 새로 시작하는 것이다. 그것이 불법의 가르침이다.

협찬: 권혁상